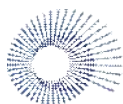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세계은행 Korea Green Innovation Days (KGID) 참석 출장보고서

2023. 10. 15. [일] ~ 10. 21. [토]

글 로 벌 지 식 협 력 단 지



GKEDcenter
Global Knowledge Exchange & Development Center



한국개발연구원

1

출장배경 및 목적

1 출장 배경

- ☐ 세계은행 녹색성장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이하 KGGTF)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솔루션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한국 녹색혁신의 날」(Korea Green Innovation Days, 이하 KGID) 매년 개최
 - 10월 17일(화) ~ 19일(목) 이집트 카이로에서 3일간 개최되는 2023년 KGID에서는 KGGTF 사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경험, 사업성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
- ☐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Global Knowledge Exchange and Development Center, 이하 GKEDC)는 세계은행 KGGTF의 초청을 받아 본 행사의 지식공유 세션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는 한편, 녹색성장 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본 출장을 기획
 - KDI GKEDC는 2018년 개관 이후 세계은행 KGGTF와 함께 폐기물 정책, 에너지전환, 환경유해보조금 등을 주제로 한 지식공유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음.

2 출장 목적

- ☐ 2023 KGID 행사 참석 및 발제
 - 10월 17일(화) ~ 19일(목) KGID 행사 전 일정 참석
 - 지속가능한 발전 현안 확인 및 GKEDC 국제협력 협업 기회 모색
 - 참석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GKEDC 국제협력 방향성 정립
 - 10월 18일(수, 2일차) 지식공유플랫폼 세션 발제 및 토론 참여
- ☐ 세계은행 사업 담당자 면담
 - KGID 행사에 참석한 세계은행 사업팀과의 파트너십 면담을 통해 한국방문 연수 공동 개최 및 신규 지식공유사업 발굴 관련 논의
- ☐ 유관기관 사례조사
 - 주요 전시관 사례조사를 통해 GKEDC 전시 및 국제협력 사업 연계(안) 모색

2 출장 개요

- ☐ 출장지: 이집트 카이로
- ☐ 기 간: 2023년 10월 15일 (일) ~ 10월 21일 (토), (출·입국일 기준, 출장자별 출입국 일정 상이)
- ☐ 출장단: 총 2명

#	성명	소속 및 직위
1	선종인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1팀장
2	홍은선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1팀 연구원

3 출장 일정

일자	시 간	내용	비고
10월 15일(일)	18:00	국내 이동 및 출국 수속	
	23:55	인천 출발	EK 323(선종인)
10월 16일(월)	01:30	인천 출발	QR 859(홍은선)
	11:05	카이로 도착	EK 927(선종인)
	11:55	카이로 도착	QR 1303(홍은선)
	16:00-18:00	KDI-세계은행 EAP팀 면담 참석	
10월 17일(화)	09:00-18:00	Korea Green Innovation Days 프로그램 참여 - 개회식 - KGGTF 및 녹색성장 사례 공유 - 한국 펀드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소개	
10월 18일(수)	09:00-15:00	Korea Green Innovation Days 프로그램 참여 - 분과 세션 참석 및 발제: 한국의 지식공유플랫폼 사례 소개 - 분과 세션: 교통 - 현장견학	강동수 단장 발제 (선종인 대참)
	16:00-17:30	KDI-세계은행 KGGTF팀 면담 참석	
10월 19일(목)	09:00-16:00	Korea Green Innovation Days 프로그램 참여 - 분과 세션: ①디지털, ②농업 - 분과 세션: 환경 - 현장견학	
	17:00-19:00	KDI-세계은행 가나팀 면담 참석	
10월 20일(금)	10:00-11:30	GKEDC-세계은행 이집트 농업팀 면담	
	20:05	카이로 출발 카이로 출발	EK 924(선종인) QR 1302(홍은선)
10.21. (토)	16:55	인천 도착	QR 858(홍은선)
	17:00	인천 도착	EK 322(선종인)

4 기타사항

1 항공편

☐ 선종인

항공편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EK 323	인천	두바이	10/15(일) 23:55	10/16(월) 04:25
EK 927	두바이	카이로	10/16(월) 08:15	10/16(월) 11:05
EK 924	카이로	두바이	10/20(금) 20:05	10/21(토) 00:40
EK 322	두바이	인천	10/21(토) 03:40	10/21(토) 17:00

☐ 홍은선

항공편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QR 859	인천	도하	10/16(월) 01:30	10/16(월) 05:45
QR 1303	도하	카이로	10/16(월) 08:35	10/16(월) 11:55
QR 1302	카이로	도하	10/20(금) 20:05	10/21(토) 23:20
QR 858	도하	인천	10/21(토) 02:10	10/21(토) 16:55

2 숙박정보 [이집트 카이로]

☐ 선종인, 홍은선

호텔명	The Nile Ritz-Carlton, Cairo
주 소	1113 Corniche El Nil, Cairo, Egypt, 11221
연락처	+20-2-25778899

※출장자 중 홍은선 연구원의 항공권 및 숙박은 세계은행에서 전액 부담

2023 KGID 행사 참석 및 발제

1. Decade of Green Growth Impacts through KGGTF

□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09:50-10:25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 세션구성

- (발제) 왕형근(세계은행 KGGTF 팀장), 임수잔(세계은행 교통 선임전문관), Menan Omar (IFC 담당관)

□ 주요 논의내용

- (Decade of Green Growth Impacts with KGGTF) KGGTF는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2년 설치된 세계은행 내 유일한 녹색성장 분야 단독 신탁기금으로 동 기금을 통해 한국정부와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녹색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음.
 - KGGTF는 현재까지 총 217개의 세계은행 사업에 총 1억 1,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지원하였으며, 물·농업·도시·교통·디지털 개발·에너지·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해 노력
 - 주요 사례로는 ▲우간다 수자원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후대응 역량강화 사업, ▲케냐 기후스마트농업 증대를 위한 디지털기술 연계 사업, ▲파키스탄 녹색투자 사업,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대화 기술 연계 사업, ▲모로코 청색경제 잠재력 증대 사업, ▲태평양 도서국가 E-모빌리티 및 배터리 저장 기술지원 사업 등이 있음.
- (Green Transition of Transport in Egypt) 세계은행은 협력국가들의 교통 분야 녹색전환을 위해 Avoid-Shift-Improve/Resilience 접근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이집트 교통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석 및 차관사업을 통해 포용성 및 회복탄력성을 주류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까지 KGGTF의 지원을 통해 교통 유동성 추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전략적인 지역 교통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대중교통 내 디지털데이터관리시스템 도입,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관련 규제 강화, ▲BRT 등 고도화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투자 등 모빌리티 녹색전환의 기회들을 창출하고 있음.
- * 카이로에서 진행된 MAPTIS (Mobility Assessment and Public Transport Improvement Study) 교통 모빌리티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모든 주민의 경제적 기회 강화의 핵심요소임을 확인
- (STEP* Success Story: Creating a Market for Energy Efficient Motors in Egypt) 에너지 위기, 전기 생산량 유지 부담, 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 등 이집트의 에너지 관련 산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STEP 프로그램은 이집트 내 에너지 효율적인 제조업 성장 및 기계 도입을 통한 산업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목표로 함.
- * Smart Technology and Energy Efficient Production Program의 약자
 - 동 프로그램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사업 초기 단계에서 민간 부문을 통합하고 참여자 간 신뢰 구축, ▲정부기관들의 협력·조율 역할 수행 등이 성공의 필요조건임을 보여줌.

□ 사진자료



2. Green Growth in Action: The World Bank, Korea, and Egypt

□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10:40-12:00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 세션구성

- (사회) 손지애(이화여대 초빙교수)
- (발제) Richard Damania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성우(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Ali Abo Sena (이집트 환경청 최고책임자)

□ 주요 논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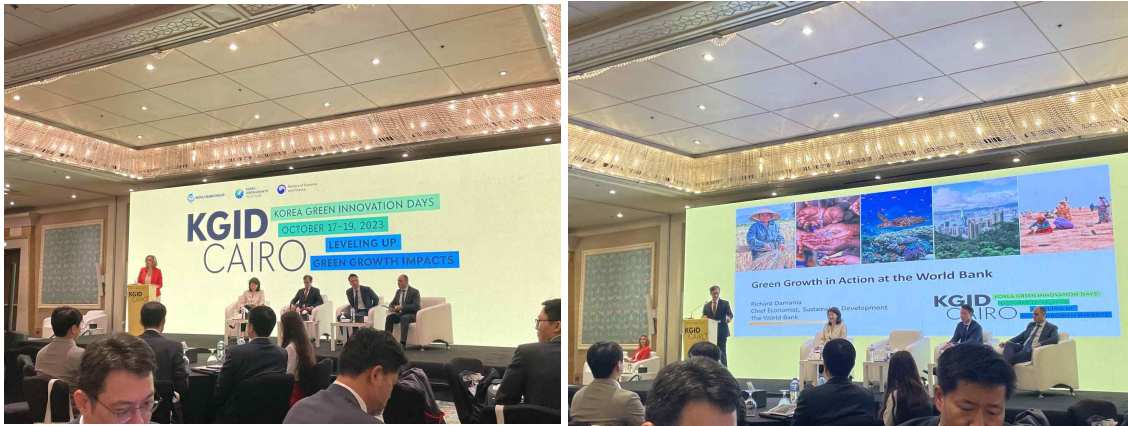
- **(Green Growth in Action at the World Bank)** 영유아 사망률 급감 및 인구 문해율 상승, 빈곤률 감소 및 교통통신비용 하락 등 인적·물적자본에 있어 많은 진보를 이룬 반면, 대기·토양·물 등에 대한 인구 1인당 자본 비율은 지난 몇 십년간 급감하고 있어 기후 변화 및 자연자원 고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 필요
 - 세계은행은 새로운 비전과 미션* 아래 현황 진단·분석, 국가자문, 차관 등의 수단을 통해 각 섹터를 녹색화(Greening sectors)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21세기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함.

* ① Our vision is to create a world free of poverty on a livable planet,
② Our mission is to end extreme poverty and boost shared prosperity on a livable planet.

- **(Lessons from Korean Green Growth Journey for Private Sector Engagement)** 한국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40%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발효하였으나, 향후 더욱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에너지 믹스의 균형, 정부-지방-민간부문간 연계, 혁신적인 사전예방적 대응, 범정부 통합 지원 등으로 정책방향 선회 필요
 - 민간부문 참여 유도 관련 시사점으로 ▲탄소가격제를 통한 외생성의 내생화, ▲경제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 ▲법제도 구축 등의 거버넌스 구축을 꼽을 수 있으며, 세계은행은 민간부문의 탄소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상공회의소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원 가능
 - 더불어, 산업 관련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부의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에 대한 의지를 일찍 장기간 강한 시그널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심도 있게 고려하고 그들의 사업 전략에 포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집트 또한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산업 표준화 혁신 등 이집트 환경부와 경제기획부가 함께 협력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녹색 연계 (green engagement) 관련 모범사례가 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사진자료



3. Leveling up Green Growth – Global Trends

□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13:15-14:45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 세션구성

- (사회) Richard Damania(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 (발제) 이기수(수출입은행 다자사업부 팀장), May Abdel Hamid (SHMMFF 최고경영자), 이상협(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 Dalia Wahba (Hassan Utilities 최고경영자)

□ 주요 논의내용

- (Green EDCF Strategy and Operation Cases)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기금으로 현재까지 교통(36.5%), 보건(14.7%), 수자원 및 위생(13.6%), 에너지(9.8%)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옴.
- EDCF 2023-2025 중기전략은 그린 EDCF를 통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 라 지원 목표를 포함하며, ▲기후변화대응요소 통합, ▲기후변화 완화 사업 지원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세부 추진방향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에서 사업 수행 중
- 새로운 기후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기술 혁신 참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
 - (Leveling up Green Growth - Case from Egypt) SHMFF는 2014년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된 경제기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5,000개의 녹색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SHMFF는 이집트 주택건물국가연구센터와 함께 도시계획 및 사회 주택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서 녹색 피라미드 평가시스템 (Green Pyramid Rating System)을 개발하였으며, 에너지 소비의 24-50% 감축, 고체폐기물 70% 감축 목표를 포함한 녹색주택 이니셔티브 추진
 - (Greenovate Korea, Act With NIGT) 국가녹색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NIGT)는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연구기관으로서 녹색 솔루션을 개발하고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과 정책 간 다리 역할을 수행
 -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자원(GCF), 전략(GGGI), 기술(GTC, NIGT) 3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며, NIGT는 지난 10년 동안 국가 기후기술 정책 및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자원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기후 기술 협력 모델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둠.
 - * Green Rectangle Philosophy의 경우 거버넌스(CTCN) 포함 4요소로 구성
 - NIGT는 세계은행, ADB, IDB, CTCN, GGGI, GCF 등의 국제개발기구와 함께 크게 해외사업화 모델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국별 국제기술협력 사업들을 수행하며 국제협력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음.

□ 사진자료



4. Green Growth Tour Around the World

□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15:00-16:30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 세션구성

- (사회) 왕형근(세계은행 KGGTF 팀장)
- (발제) Silvia Martinez Romero (세계은행 에너지 선임전문관), Hongye Fan (세계은행 교통전문관), Anuja Shukla (세계은행 환경전문관), Dao Harrison (세계은행 도시 선임전문관), George Joseph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 주요 논의내용

- (Rebuilding Ukraine Resilient Energy Future: A collective endeavo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 및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역의 2차 피해 평가(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가 2023년 2월 까지 시행되었으며 곧 3차 사업 개시 예정
- 에너지는 피해 규모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의 절반 이상이 손상을 입은 상황으로 세계은행*은 에너지 섹터에 대해 전력 및 난방 인프라에 대한 긴급장치투입 등 리파워(Repower) 및 리디렉팅(Redirecting)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KGGTF를 통해서는 기술지원프로그램 추진

* ① 세계은행은 현재 구호와 회복 중심의 1단계 접근과 전후복구를 위한 2단계 접근을 구분하여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획 중.

- **(Ghana' s Expedition towards Internodal Excellence)** 홍수 및 폭염 등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가나 쿠마시 지역은 대기오염의 80% 이상이 차량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1시간 거리 이내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한편, 50%의 인구가 도보이용자이며, 43%의 인구가 대중교통 이용자임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

- 이에 세계은행은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쿠마시 도심 이동성 및 접근성 사업(Kumasi Urban Mobility and Accessibility Project)*을 기획 중이며, 전체 사업예산 4억 4천만 달러 중 2억 달러 지원 예정

* 다음의 3가지 사업 주제를 중심으로 사업 디자인: ①Mobility(이동성), ② Safety(안전), ③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 **(Enhancing India' s Capacity for Green and Resilient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Management)** 세계은행이 인도 해안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2010년~2020년 진행한 ICZM 사업의 성공요소로는 튼튼한 지식기반·기관역량, 지방정부의 소유권, 기관간·부문간 통합, 이해관계자의 참여, 외부지원 및 국제적인 지식파트너십이 꼽힘.

- 현재는 KGGTF 재원을 바탕으로 자원 효율적이고 탄력 성장을 위한 자연경관 및 공기창고 관리 사업(Landscape and Airshed Management for Resource Efficient and Resilient Growth)을 추진 중이며, ▲하이브리드 방식의 해안보호, ▲순환경제 운영, ▲지속 모니터링시스템, ▲해양공간계획 등이 향후 지식공유 및 협력을 위한 주제로 제안됨.

- **(Affordable Housing is a Balancing Act: Lessons from Indonesia)** 주택보급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차점으로 균형 잡힌 주택보급*을 위해서는 수요 과다 공급 부족의 시장실패를 바로 잡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주택 공급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녹색 주택을 개발해야 함.

* 모두를 위한 주택에게 모두에 의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AIRS (Affordability, Inclusivity, Resiliency, Sustainability) 원칙에 기반함.

- 특히, 인도네시아의 녹색 주택보급 프로그램(Indonesia Green Affordable Housing Program)은 세계은행의 기술지원 사업으로 ▲신규주택의 녹색설계, ▲민간부문 참여 유도, ▲주택건축위치 적합성 평가, ▲녹색인증 확대, ▲기초사전조사를 통한 탄소배출권 잠재성 발굴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약 10만 개의 녹색주택과 2030년까지 100만 개의 탄소제로 녹색주택을 건설하고 2050년까지 100% 탄소제로 주택보급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세계은행은 주택의 디자인 자체는 물론, 주택의 위치, 주택가의 밀집도와 포용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지원
- (Unveiling Nepal's Waterscape: Pioneering Policies and Technologies)
현재 네팔은 높은 빈곤율 대비 낮은 인적자본, 증가하는 도시화 및 자연재해 등의 개발문제에 직면한 상황으로 세계은행은 네팔의 포용적인 녹색 개발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GIRD 프로그램*을 통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기후·재난 탄력적 인프라 구축, 토지사용·관리 전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대응 등을 추진하고자 함.
- * Green, Climate-Resilient, and Inclusive Development 프로그램의 약자로, 사업 1단계에서는 GRID 원칙을 개발전략에 통합하고 2단계에서는 세부 섹터 정책에 개입
- 특히, 2단계의 통합 수자원 관리 및 탄력적 물 공급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지식교류를 통해 한국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차후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바 있음.

□ 사진자료



5. Financing Opportunities from Korea: Unleashing Innovation and Support

□ 일 시: 2023년 10월 17일(화), 16:30-17:20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 세션구성

- (사회) 왕형근(세계은행 KGGTF 팀장)
- (발제) 최홍석(수출입은행 다자사업부 선임연구원), 이경채(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알제리사무소장), 김대용(KDI 개발연구실장), 신경진(한국수자원공사 유럽사무소장)

□ 주요 논의내용

- (Exploring Co-financing Opportunities with EDCF) EDCF는 세계은행과 공동융자하여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개발 사업을 포함한 1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이 있으며, EDCF의 높은 양허성은 세계은행 사업의 경제적·재무적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수여국의 전반적인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강점이 있음.
 - 따라서 세계은행과는 재원조달을 위해 EDCF를 통해 공동융자나 보충금융 방식으로 협력 가능하며, 일례로 세계은행의 IBRD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인도의 활력적 에코시스템을 위한 전력차량 운영 차관 사업(Electric Vehicle Operations and Lending for a Vibrant Ecosystem, EVOLVE)을 추진한 바 있음.
- (Green Cooperation Opportunities with KEITI) KEITI의 녹색재원 지원사업은 1단계 네트워킹, 2단계 프로젝트 개발, 3단계 금융차관으로 진행되며, 이집트 지역에서는 다양한 이집트 이해관계자와 교류하고 폐기물 분류 및 관리 관련 사업에 대해 EDCF와 환경부 ODA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음.
 - 또한, 양자협력 외에도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자개발금융기구의 협력국들을 대상으로 사업별 약 30만~4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별된 사업들은 ▲현황 및 사전 타당성 조사, ▲경제성 및 재무 분석,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 등의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계은행과의 협력 사례로 방글라데시 환경 지속가능성 및 전환 사업의 경우 환경 거버넌스 강화는 KGGTF를 통해 수행하고 대기·물 관리 및 플라스틱·폐기물 관리를 KEITI가 담당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도시 폐수 관리 사업의 경우 폐수 관련 정책 지원을 KGGTF가 지원하고 지방정부 및 서비스업자 기술지원·역량강화와 폐수 인프라 개발을 KEITI에서 수행
- **(KDI: KSP, EIPP and Global Partnership)** KDI의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심화된 지역·분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 처음 개시된 한국의 대표적인 ODA 프로그램인 지식공유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KSP)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PP)을 운영하고 있음.
 - KSP의 경우 n-2년의 사업 주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 국가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주요사례로는 2019/20 멕시코 소노라주 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 2017/17 이집트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정책자문, 2022/23 우루과이 순환경제 전환, 디지털화 및 녹색 제품 활성화 촉진정책이 있음.
 - 또한, KSP를 통해 축적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스마트농업정책, ▲E-모빌리티 개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분배, ▲디지털 무역을 주제로 하는 10개의 정책사례 가이드를 개발하여 과학, 기술 및 ICT, 환경, 공공행정 등 한국의 최신 모범사례를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형태인 피피티 및 영상으로 제작·배포하여 개발도상국의 정부관계자들이 간편하게 필요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개
 - EIPP의 경우 KSP와 달리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한 다년도 정책·기술협력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녹색에너지, 미래모빌리티, 혁신적 산업단지 등을 핵심 주제로 하여 2022-23년 기준 4개 국가에서 17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Green Water Project Development with K-water)**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환경부의 녹색 ODA의 수행주체로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수자원관리, 스마트 해안도시, 물 공급,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2022년도 기준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29개의 사업을 추진 중

-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주, 땅그랑시, 남땅그랑시 3개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까리안 광역상수도사업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제안 민관합작투자(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형태로 참여하여 한국판 광역상수도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 유럽사무소는 2022년 파리에 설립되어 아프리카 지역을 배경으로 물 관련 녹색사업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을 연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케냐 나이로비 지역에서 무수익 수량 감축 및 스마트 물관리 사전타당성조사 프로젝트 착수 예정

□ 사진자료



6. [Breakout Session] Increasing the Impact of Knowledge Sharing Platforms: Key Players & Best Practices

□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09:00-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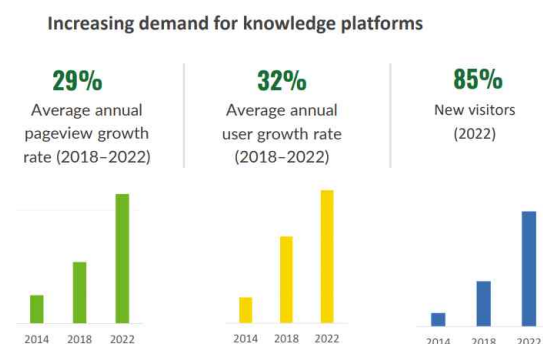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 세션구성

- (사회) Elisa Tonda (UNEP 자원 및 시장 부서장)
- (발제) Ingvild Solvang (GGGI 기후행동 및 포용적 개발부서 이사), 선종인(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1팀장), 조백희(LH 글로벌협력센터장), 문주연(한국녹색기술연구원 연구원), Patrick Gilabert (UNIDO 이집트 허브 대표)

□ 주요 발표내용

- (세션배경) 녹색성장 관련 최근 지식을 공유하고, 해당 지식을 전 세계 파트너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지식 플랫폼 강화 방법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함.
- GGKP (Green Growth Knowledge Parentship)
 - (목적) 포용적 녹색경제 구현을 위해 함께 지식을 모으고, 관리·공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공공, 민간, 금융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커뮤니티
 - (기관구성) 운영위원회 총 4개 기관(GGGI, UNEP (유엔환경계획), UNIDO (유엔산업개발기구), 세계은행, OECD) 및 95개 파트너기관* 참여
- * 예시) 독일국제협력기구(GIZ), 한국환경연구원(KEI), 한국과학기술원(KAIST)
- (운영 플랫폼)
 - 1) Green Policy Platform: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툴, 데이터, 최근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
 - 2) Green Industry Platform (I-Go Assistant): 중소기업의 자원 효율화 도모를 위한 플랫폼으로 맞춤형 지식 공유, 탄소중립 사업을 달성을 위한 자원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연계 서비스 지원 및 개별 평가
 - 3) Green Finance Platform (Measures Database): 190개국 (개도국 및 선진국)의 780개 지속가능 금융정책 및 규제에 대한 데이터 제공.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 녹색 금융 재정은 약 317% 증가
 - 4) Green Forum: 전문가들이 지속가능 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포럼
- (활용 현황) 월간 페이지 방문자 수 34,000+, 페이지 뷰어 1,230,000+, 지식정보자료 14,000+, 다운로드 수 465,000+



○ GKEDC (글로벌지식협력단지)

- (주요내용)

- 1) GKEDC 소개, 운영주체인 KDI 소개
- 2) 녹색성장 관련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수 사례 소개
- 3) 지식공유 플랫폼 및 파트너로서의 KDI의 역량 공유

○ LH (Korea Land&Housing Corporation)

- (주제) 도시화가 직면한 문제 해결방안: 뉴타운 건설 및 균형 잡힌 지역 개발

- (현황) 도시인구가 필요한 주택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도시개발, 인구의 폭발적 증가, 전반적인 산업분야의 인프라·서비스 부족

- (해결방안) 한국 사례

1) 공유수면 매립사업

- (장점) 강둑정비를 통한 홍수예방, 제방 안쪽으로 새로운 주택 건립, 공공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토지의 매매를 통한 이익 창출
- (단점) 한강 접근성이 낮아지고, 강변을 따라 건립된 주거지역의 경우, 특권층의 거주공간으로 고정됨.

2) 토지공매

- 토지구획정리는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기 전에 개발자들이 특정 구역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작업. 단면재계산은 토지구획정리 단계에서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의 건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남기고 소유자들에게 배분되면서 공공택지가 마련될 수 있음.
- (장점) 시민불만 최소화, 프로젝트 참여가 상대적으로 수월함, 공공택지 확보에 유리 등
- (단점) 토지구획정리로 인해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경향, 토지 사용의 효율성 감소, 불공정한 토지 배분의 위험 등

3) 뉴타운 건설

- 1차(1989-1996): 주택가격 안정화 및 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 부족 문제 해결, 5개의 뉴타운 건설
- 2차(2001-2010): 지속가능한 도시 달성, 무분별한 도시 확장 금지

4) 지역균형발전

- 세종 행정 도시: 47개 정부기관 및 16개 국가연구소 소재지, 친환경도시, 에너지 독립도시, 안전&편리 도시 지향

- 10개 혁신도시: 112개 공공기관 및 1,663개 민간기업 소재지

- (시사점)

- 1) 자본집중 개발: 도시화 초기에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 될수록 연속적인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자금 확보가 필요
- 2) 주택과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주택부족 문제는 서울 외곽지역에 뉴타운을 건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뉴타운 건설은 지역 간 불균형 격차 축소 및 수도권 인구집중의 방안이 됨.
- 3) 오늘날의 과제: 포용적 도시개발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녹색 도시 건립과 지속적인 지역 균형발전, 도시 재생 문제 해결 필요

○ NIGT (National Institute of Green Technology)

- (국립녹색기술연구소 소개) 녹색성장의 도전과제, 기후변화 이슈를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기후변화 관련 기술의 도입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 및 기후 관련 행동 프로젝트 수립 및 실시에 참여

- (프로젝트 사례) 2016~2023년 간 약 55개 프로젝트* 수행

* 예시) 세르비아 IoT 기반 스마트 계량, 캄보디아 E-모빌리티, 스리랑카 ESS 및 태양 피크리덕션, 인도네시아 쓰레기 에너지화

- (지식의 활용) 기술활용 정책 로드맵 구성(시나리오 분석), 타당성 조사(경제성 분석, 재정평가, 환경영향평가, 기술평가 등), 컨셉노트 작성 및 학술적/연구적 논문제작 등을 통한 지식 상품 생산과 이 결과물을 실제 사업에 접목하기 위한 지식의 확산 활동
- (타 기관 플랫폼과의 연계) 실행계획의 공동수립 및 위험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회를 생성하여 사업영향력 강화

○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UNIDO 소개) 1966년 수립되었으며, UN의 특별기구로 1985년 재정됨. 현재 170개국이 멤버로 속해있으며, 주요 목표는 개도국 및 경제전환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개발 지원
- (지식공유의 장점) 공동의 지식을 형성하고, 사업 수행에의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기준이 됨. 또한 학습문화 구현과 커뮤니티 건설로 더 나은 경험을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유지. 온라인기술을 활용하여 원거리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연결하는 계기가 됨.

- (UNIDO 참여 지식공유 플랫폼)

- 1) UNIDO 오픈 데이터 플랫폼: UNIDO의 모든 프로젝트 확인 가능
- 2) 녹색산업 플랫폼(GGKP 운영): UNIDO 주요 파트너기관으로 참여
- 3) UNIDO 산업심층탈탄소화 엑셀러레이터: 산업 조직 에너지 효율증대, 재생가능 대체에너지 개발, 중화학공업 탈탄소화 전환 가속화를 위해 UNIDO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사례) 이집트 최초 기후·환경 투자 플랫폼

- 이집트 녹색경제에서 중소기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시스템의 변화* 도모.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및 비즈니스 기회, 전문서비스 제공 및 정부 대 기업의 직접 연계 지원

* 예시) 폐기물관리,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산, 대체연료 및 농업 관련 소규모 응용 분야 확대

- 기후 및 환경 시장의 데이터 취합 및 연구, 녹색 금융시설에 대한 정보와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전 타당성 분석 및 프로필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 지원, 그리고 녹색 및 순환경제에 대한 투자 기회 제공

□ 사진자료



7. [Breakout Session] Transportation: Building Capacity at Home

□ 일 시: 2023년 10월 18일(목) 10:45-12:00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이집트

□ 세션구성

- (사회) Susan Lim (세계은행 교통 선임전문관), Salma Fattah (세계은행 교통 선임전문관)
- (발제) Mona Kotb (이집트 교통부 부총리), 윤승조(한국교통대학교 총장), Ibrahim Mohamed Imbrahim Ramadan (반하대학교 부교수), Ahmed E. Hassan (카이로대학교 부교수), 장승협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주요발표 내용

- (세션배경) 본 세션은 국가 교통 부처의 빠르고 규모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을 위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
- (이집트 벤하대학교, Benha University)
 - (배경) 이집트의 교통운송은 전국의 사람, 상품, 서비스를 연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당장에 직면해 있는 과제들을 고려하면 현실과 이상의 상당한 격차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등에 교통대학 설립을 위한 협업을 요청
 - (교통국, Ministry of Transportation, MOT) 이집트 내의 운송관련 (항만, 도로, 철도, 교각, 터널 등) 부문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총 1,957백만 이집트 파운드(약 840억 원)가 투자됨.
 - (투자결과) 1,848개 교각 건설, 전 세계 무역량의 12%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진행. 184,000km의 도로 정비 및 126개의 선박 제조
 - (현재 투자 관련 이슈)
 - ① 특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 부재: 종합적인 교통 관련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분야에 필요한 숙련된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 ② 부족한 재정 및 인프라: 재정 자원과 적절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교통 관련 프로젝트 및 연구 계획의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
 - ③ R&D 투자의 한계: 운송 분야의 R&D 투자 부족으로 혁신과 기술발전이 느리게 이루어짐.

- (공학교육 역사) 가자 피라미드, 스�핑크스, 고대 관계수로 시스템 등을 살펴보면 이집트의 공학교육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 되었음.
- (교육기관 현황)
 - 대학교: 27개 공립대학, 19개 국립대학, 18개 정부 기관, 47개 사립대학, 120개 사립 기관 등
 - 공학대학: 전체 97개 기관(26개 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학대학 포함), 71개 사립대학 및 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계속 증가 추세
- (교통부문 진학현황)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 중 약 8%만이 공립공학대학에 입학하고, 전체 대학 졸업자 약 45,000명 중 약 20%는 토목학과를 전공하며, 교통/운송 부문 특화된 전문가는 약 2%에 불과
- (교통대학 건립 필요성) 교통 전문대학은 해당 분야의 고급기술, 혁신적인 솔루션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현대화와 국가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건립방식)
 - ① 국제기구와의 협업: 전문가 섭외, 지식교류, 연구협업 등
 - ② 정부지원 및 투자: 재정 및 교육에의 투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연구 기능의 활성화는 교통대학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
 - ③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교통 분야의 수요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숙련된 인력과 산업의 혁신을 도모
- (대학비전) 교통 교육, 과학연구 및 교통 분야의 국제 경쟁에서 이집트 및 중동 대학의 선도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하는 것
- (대학미션) 교육·과학 연구를 위한 발전된 환경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균등한 배움의 기회 및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지역사회 가치와 윤리 유지에 기여
- (현재 교육대학 건립관련 이슈)
 - ① 재정 및 자원배분; ② 규제 및 인증 조건; ③ 교수진 채용 및 유지; ④ 커리큘럼 개발; ⑤ 인프라 및 교육 시설; ⑥ 교통대학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⑦ 산업과의 협업; ⑧ 품질 관리; ⑨ 학생 모집; ⑩ 시장 수요 및 문화/사회적 요인 등
- (이집트 카이로 대학교, Cairo University)
 - 국가의 경제 상태는 다양한 운송 수단이 얼마나 잘 제공되고 시스템이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짐.

- 현재 교통분야 전문가가 부족한데, 대다수의 공학대학 졸업자들은 건설 관련 전공을 택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효과적인 디자인과 건설 및 운영을 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
- (이집트 비전 2030) 프로젝트 관련하여 247백만 이집트파운드(2022-2023), 321백만 이집트파운드(2023-2024)가 교통분야에 배정됨. 프로젝트는 터널, 도로, 교량, 운송센터, 육상항만 건설과 신규 항만건설은 물론, 기존 항만의 확대, 도로 수리, 시그널 시스템 보수공사, 자동운영 시스템 구축, 신규 철도 건설 등 포함
- (교통대학교의 도전과 기회) 재정 지원, 대학의 자원, 잘 구축된 실험실, 교수진의 역량강화, 학생 유치 등에 대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취업과의 연계, 경제성장에서의 기여, 실제 수요에 맞춘 인력 공급 가능성 등을 기회로 생각할 수 있음.

○ (한국교통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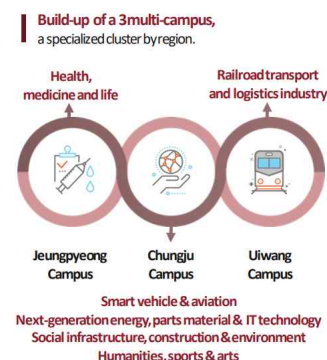
- (비전)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며, 지식과 실무를 연결하여 세상과 통하는 한국교통대학교
- (전략) 창의융합형 실무인재 양성, KNUT-MOVE 산학융합 추진, 지역산업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 가치공유의 지역 생태계 구축, 학생 중심의 미래형 캠퍼스 구축이라는 5대 전략에 맞추어 전인적 교양인, 창조적 전문가 그리고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 (충주대학교의 역사) 첫 시작은 1914년 조선총독부 청주 자혜의원 조산부 및 간호부 양성소였으며, 이후 1993년 충주산업대학교 개교를 기반으로 1999년 충주대학교로 교명 변경. 2006년 청주과학기술대학과의 통합.
- (철도대학의 역사) 1905년 인천 제물포에 철도이원양성소를 설립하고, 1967년 철도 고등학교, 1977년 철도전문학교(2년제)로 개편됨. 2012년 충주대학교와 통합되면서 한국교통대학교가 시작됨.
- (한국교통대학교의 역사) 2018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교육국제화 역량(IEQAS) 인증대학으로 선정됨. 2023년에는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1.0)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 스쿨) 운영기관으로 7년째 연속 선정됨. 현재는 글로벌 대학 30 프로젝트의 예비 대학으로 선정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음.

- (캠퍼스 운영) 중평캠퍼스(건강, 의약 등), 충주 캠퍼스(스마트 자동차 및 항공, 신재생 에너지, IT 기술, 사회인프라, 환경 등) 및 의왕 캠퍼스(철도 및 물류산업)
- (연구프로젝트) 39.03백만 달러 규모의 352개 연구 프로젝트 진행
 - 국립대학교 지원프로젝트: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학생중심 교육 모델 구축
 -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 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과 대학 간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 LiFE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대학 내 평생교육 개발 및 운영 지원 프로젝트
- (MOU) 현재 173개 해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KGID에서 이집트 정부와의 협력 준비 중.

○ (토론세션)

- 한국의 교통대학교는 많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가지고 있어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교통대학교와 이집트 교통국과의 협약서 서명을 통해 지속적인 협업관계가 형성을 기대
- 이집트의 교통 전문가, 교통국 공무원 등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기관방문 및 전문가 강연 등 역량강화연수를 진행하여 보다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

□ 사진자료



8. [Breakout Session] Data and Digital for Climate Action

□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09:00-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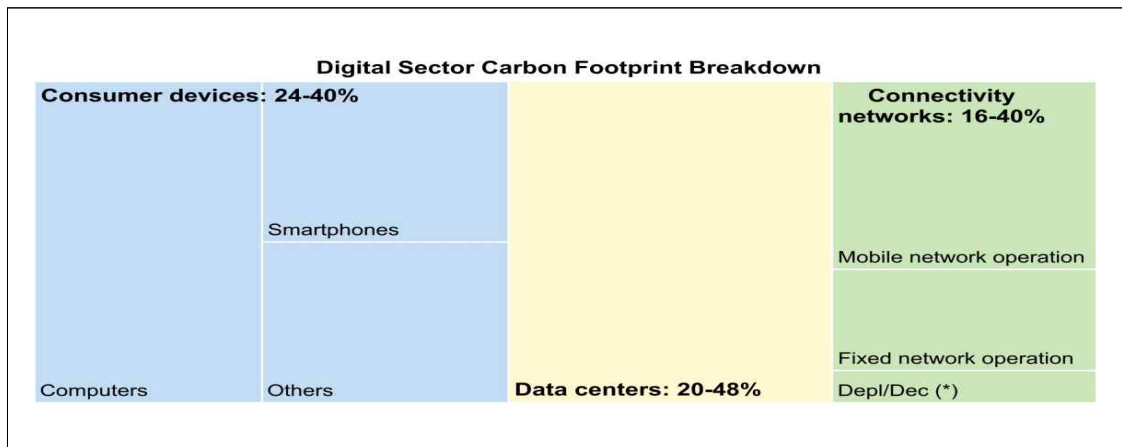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이집트

□ 세션구성

- (사회) Zaki Khoury (세계은행 선임 디지털 개발 전문가)
- (발제) Affouda Leon Biaou (세계은행 이집트 사무소 인프라 프로그램 책임자), H.E. Eng. Hoda Shakra (정보통신부 산업 및 대외관계 장관 고문 겸 매니저), 고윤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

□ 주요발표 내용

- (세션배경) 디지털 기술은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부문(예: 농업, 에너지, 운송 또는 수자원)에 적용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임. 발전을 거듭해 온 디지털 기술이 국가가 경제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 (Framing Presentation)
 - 30억 명의 인구는 아직도 온라인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음.
 - 글로벌 온실가스 (Green House Gas, GHG) 배출의 1.5~4%이 디지털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하단은 디지털 부문을 세부 카테고리 분류한 그림



-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배출량을 조율하고 기후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의 64%는 기술을 통해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음.
- 온실가스 배출의 1.4~2040년이 되면 ICT 가스배출량이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Belkhir & Elmeligi, 2018)되며, 1.5℃ 궤적을 따르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ICT 부문 온실가스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 400Mt-CO₂ 미만으로 제한 필요
- 일부 국가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과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참여에 뒤처져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 지구적 대응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

○ (세계은행 녹색기술 투자)

- 현재 카메룬(\$100million), 아르헨티나(\$200million), 몽골(\$41million), 모잠비크(\$200million) 등 디지털 연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투자는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016-2020 세계은행의 Climate 자본은 약 26% → 2021-2025 약 35% 로 증가
-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쓰나미, 기온 상승 등을 야기시키며, 전 세계의 인구에 영향을 미침.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분야별 디지털 투자)

- (농업) 농업, 임업 등은 전세계 온실가스의 25%를 방출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2030년까지 배출량의 1~4%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교통)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적화된 교통량 산정,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현대식 교통 시스템의 도입, 전기차로의 전환 등을 통해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에너지) 에너지의 비효율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수요 측면의 유동성을 높이고, 일반 주택의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바일을 통한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도시) 전체 에너지의 2/3 분량이 도시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약

70%의 온실가스가 도시에서 배출되고 있음. 디지털 기술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전체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음.

○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디지털 몰디브 프로젝트

- 185개 섬에 550,000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음. 약 90,000km² 이며 약 298km² 만이 거주 가능한 땅(dry land)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의 80% 이상이 해수면 기준 1m 이하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관광, 어업,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주요한 지표가 되는 몰디브의 산호초 생태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기획. 산호초는 해수온도, 산성화, 물리적 손상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생명체이고, 해수 아래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음.
- 프로젝트는 1) 디지털 연결성 및 경쟁력 향상, 2) 직접 및 온라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식별, 그리고 3) 기후 회복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개발* 으로 구성

* 3-a) 기후 데이터 플랫폼 운영: 정부기관, 국민, 기업들이 한눈에 기후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현 및 운영 / 3-b) 기후와 관련된 주요한 생태계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파일럿 테스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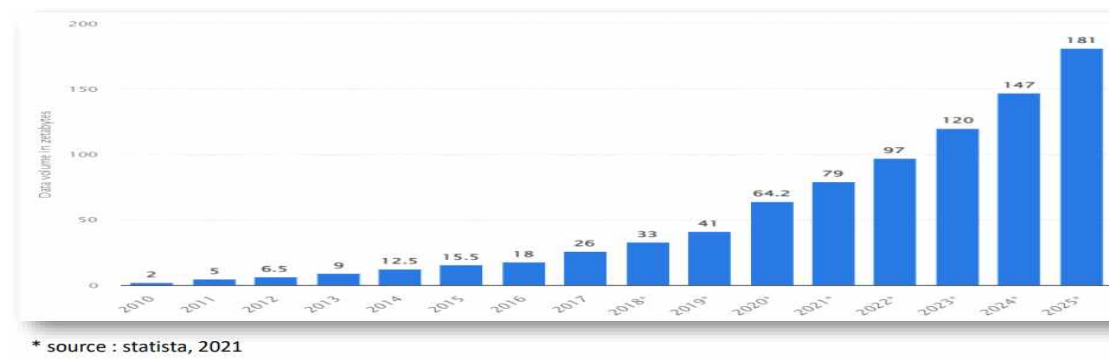
- 데이터를 확보·가공하여 시각화 하는 작업
- + 클라우드, AI,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등을 통한 글로벌 참여 도모
- +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활용을 목표로 진행함.

○ (한국 사례)

- 글로벌 데이터 생산은 연간 약 44.8%가 증가하여 2025년에는 181ZB (1ZB=281.5 trillion songs)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코리아 뉴딜 구성) 디지털 뉴딜(1.데이터 댐, 2. AI 정부, 3. 스마트 헬스케어), 그린 뉴딜(1. 녹색 재전환, 2. 녹색 에너지, 3. 에코친화 이동성) 및 디지털+녹색 컨버전스(1. 그린&스마트 학교, 2. 디지털 트윈, 3. SOC의 디지털화, 4.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

→ 빅데이터 플랫폼+공공데이터 플랫폼+AI 데이터 플랫폼 구현

한국정부의 데이터 플랫폼 구성 투자금액



- (예산) 한국 정부는 데이터 관련 플랫폼 구성에 3년간 약 USD1.6 billion 투자
- (비타민 프로젝트, Vitamin Project) 2014년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이며, 각 산업에 ICT를 접목하려는 노력으로 시작됨.
- * ex) Vitamin A: ICT-Agriculture / Vitamin B: ICT-Bio / Vitamin E: ICT-Environment

○ (향후 디지털 & 환경 연계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디지털과 기후변화의 관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정책 및 규제 수립 그리고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는 분야임.
-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AI를 접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 한 후 데이터를 구성해야 함.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반드시 플랫폼을 연계하여 데이터를 구성해야 함.
-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야 함. 해당 데이터의 흐름을 고려하여 플랫폼을 제작하고, 데이터생태계를 생성하여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디지털은 기후변화의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도전과제임: 세계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으나, 대부분 사일로로 해결되고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와 디지털이 함께 변화를 추구해가는 것 필요
- 디지털 기술은 국가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연결성, 데이터 확보, 디지털능력 향상에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 디지털 분야에서는 기후재정(Climate financing)이 무시되어온 경향이 있어, 기후행동에 필요한 재정보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사진자료



9. [Breakout Session] Agriculture and Smart Tech Solutions

□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09:00-10:45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이집트

□ 세션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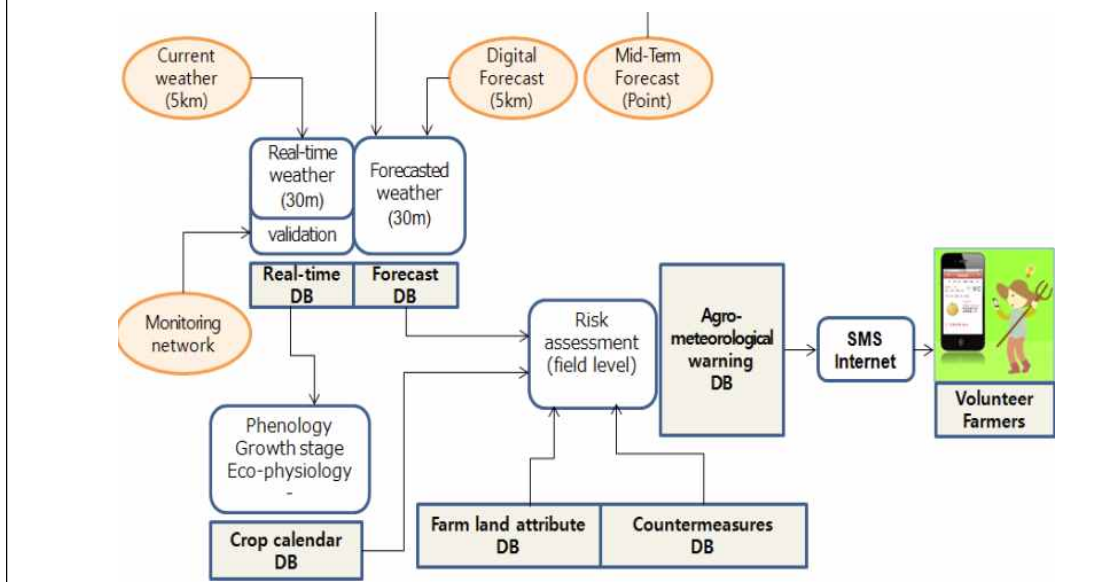
- (사회) Fatma El Zahraa Yassin Aglan (세계은행 농업 전문관)
- (발제) Deahoon Oh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선임연구원), Tomas Ricardon Rosada Villamar (세계은행 농업 선임이코노미스트), Jina Hur (한국농촌진흥청 연구원), Eirivelthon Santos Lima (세계은행 농업 선임이코노미스트), Faten Adada (유엔식량농업기구 농업개발 전문관)

□ 주요발표 내용

- (세션배경) 농업 부문은 새로운 녹색기술들을 전파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작물 모니터링, ▲회복탄력적 농장 개발 관련 농가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본 세션은 농업 및 농촌 개발의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그 영향, 그리고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 (Bahia State and IBRD) 브라질은 농촌대출, 최소 소득 지원, 농업개혁, 기술지원 등의 농촌지역 관련 국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브라질 바히아주의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이 빈곤 혹은 극빈곤층이며 약 77.8%의 농가가 가족노동 중심의 소농으로 구성된 특징을 가진 지역으로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 관련 발전이 시급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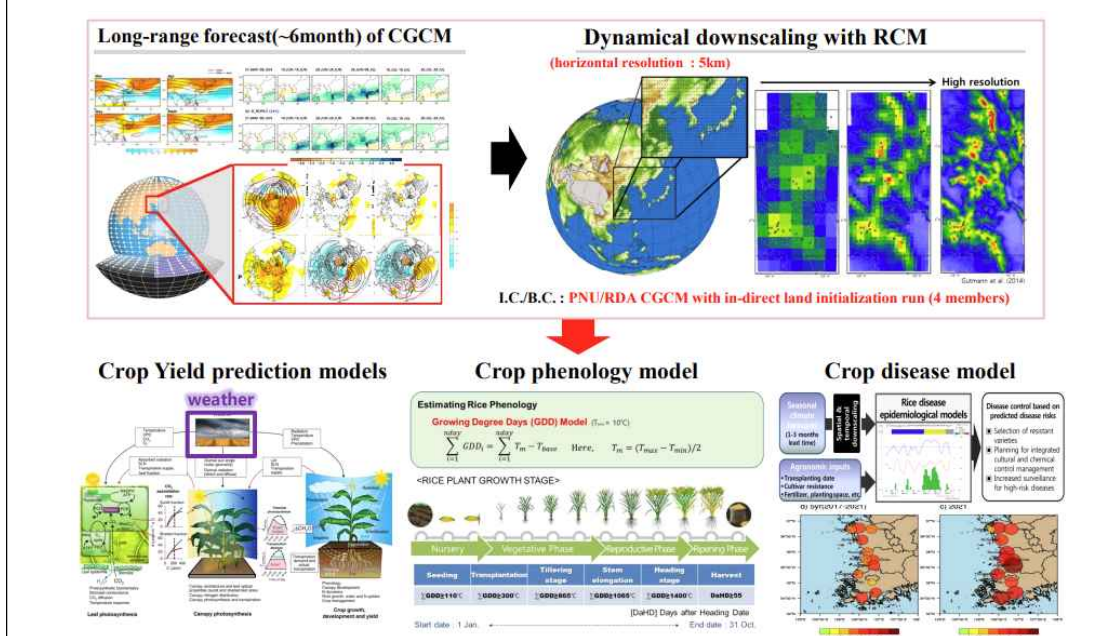
- BAHIA PRODUTIVA 프로젝트는 2015년~2022년 진행된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바히아주 농업·먹거리 지원사업으로 ▲생산적 포용 및 시장 접근성 강화, ▲원활한 물 공급, ▲제도개발 및 기술지원의 3개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많은 성과목표를 달성
 - * 예시) 수혜자 172,132명(46.69% 여성), 생산조직 1,207개 지원, 487개 비즈니스 계획 검토, 3개 물처리시설 보수·운영, 물공급시스템 183개 설치 등
- 특히, 소농·민간부문·공공기관 등의 생산조직 간 윈윈(win-win) 관계를 기반으로 소농생산물의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생산적 동맹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시장접근성 강화, 자영업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협력분야를 다각화하여 Bahia que Produz e Alimenta 프로젝트를 2023년~2027년 진행 예정
- (말레이시아의 AI 기반 스마트 농업 지역 모델 시범사업)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서 디지털 포용성, 스마트빌리지 등을 주제로 하는 국내 사업과 역량강화, IT 협력, 다자기구와의 공동사업 등의 국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AI 기반 스마트 농업 지역 모델 시범사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파인애플에 대한 살충제·비료 사용 감축 및 보다 편리한 작물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2021년~2022년 약 1년 간 진행한 사업으로 ▲관개예측 알고리즘, ▲데이터 훈련을 통한 해충·질병 예측 알고리즘, ▲모바일 서비스 UX/UI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한국의 스마트한 날씨위험관리를 위한 농업기후예측시스템) 한국농촌진흥청(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은 ①단기예측 관련 농장 조기 경고 시스템과 ②장기예측 관련 계절성 기후예측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음.
 - * 이러한 시스템들은 특정 지역의 특정 시기에 대해 다양한 미래 날씨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농장 조기경보 시스템(Farm-specific Early Warning System)



- ①농장 조기경보 시스템의 경우 개별 농장의 실시간 날씨 조건을 예측하는 동시에 특정 작물에 대한 날씨 위험을 평가하며, 만약 위험 정도가 작물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 예상될 경우 농부의 휴대폰으로 조기경보와 함께 적절한 조치에 대한 안내를 보냄으로써 잠재적 작물 피해 방지

계절성 기후 예측 시스템(Subseasonal-to-Seasonal Prediction System)



- ②계절성 기후 예측 시스템의 경우 지역 단위에서 약 1~6개월 앞서 기후지표의 변화규모 및 방향을 예측하며, 본 시스템은 글로벌

기후 모델과 지역 기후 모델을 차용하여 수집한 고해상도의 장기 예측 데이터를 농업 현장에 적용

- **(멕시코 농업기술 플랫폼 스마트팜 시범사업)** FIRA*는 멕시코 농촌 지역의 생산활동 및 농식품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1954년 처음 설립되어 현재 4개의 신탁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은행으로 다자개발은행이나 민간부문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생산자들에게 자문, 기술이전, 역량강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Fideicomisos Instituidos en Relación con la Agricultura (FIRA) or Agriculture-related Trust Funds

- 특히, FIRA의 기술 개발 센터는 소규모 농가 법인들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과 혁신적 생산자와 전통적 생산자 간 지식교류 및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생산자-생산자 확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기획 중인 AGROINCLUYE 사업의 경우 ▲농촌지역 생산 관련 자원 접근성 확대, ▲농업기술 플랫폼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GGTF는 농업기술 플랫폼 구축에 약 95만 달러의 재원을 지원 관련 협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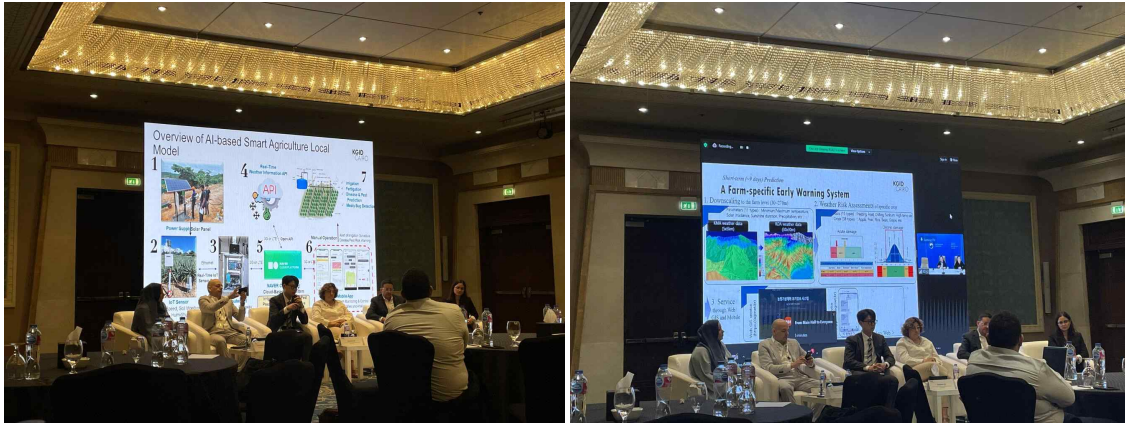
- **(농식품 시스템 내 혁신 촉진)** 유엔세계식량기구(FAO)는 농식품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이고 포용적으로 바꾸어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을 실현하고자 하며, 현재 혁신이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강조되고 있음.

- 기후변화 관련 전략은 글로벌-국가-지역 층위에서 전개되는데, 특히 지역단위에서는 모범관행 및 혁신적 솔루션 도입을 위해 FAO 과학 혁신 전략을 통해 ▲과학·증거 기반 정책결정, ▲국가적 혁신 및 기술 개발 지원, ▲FAO 역량 강화 도모
- 구체적으로, FAO 과학 혁신 포럼 2023, MENA 지역 농식품 혁신 플랫폼 기획·운영, 디지털 농업 관련 지원 사업, 농업국가 스타트업 대회, 지역 인식 증가 캠페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농식품 시스템 및 기술 혁신 지원

- **(향후 농업 분야 디지털기술 적용 방향)** 향후 농업 부문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adoption)하는 것과 확대(scale-up)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농업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을 적용하여 농작물 생산 및 관리를 최적화하는 디지털농업(digital agriculture)과 첨단기술

과 자동화를 통해 농작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스마트팜을 구분하여 데이터 및 보안 문제에 더 큰 신경을 기울여야 함.

□ 사진자료



10. [Breakout Session]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 Blue Economy: Sustaining Our Planet' s Vitality

□ 일 시: 2023년 10월 18일(목) 10:45-12:00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이집트

□ 세션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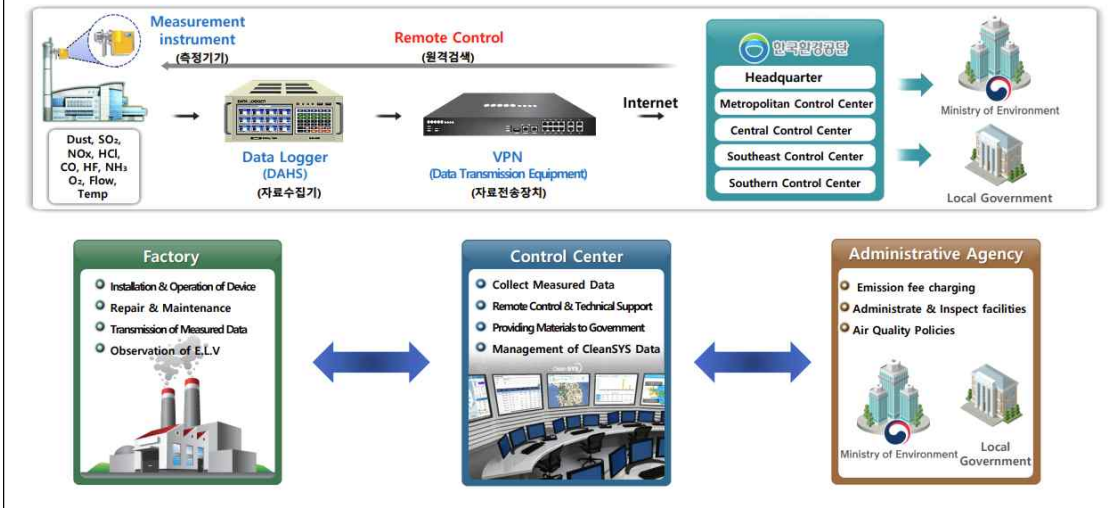
- (사회) Maysra Mahmoud Ali Shamseldin (세계은행 환경 전문관)
- (발제) 백광호(한국환경공단 연구원), Ali Abu Sena (이집트 환경부 에 이전시 최고경영자), Ajit Pattniak (오디샤 산림보호부 前 총괄), Amb. Hisham Badr (이집트 경제개발계획부 부서관)

□ 주요발표 내용

- (세션배경) 풍부한 자연자원은 경제성장, 번영, 인간복지를 위한 초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생태계를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진보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한 혁신적인 녹색성장 전략을 심화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련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
- (한국 대기 질 모니터링 네트워크) 한국의 Clean SYS* (굴뚝원격감시체계, Stack Emission Monitoring System)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통제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 1990년대 처음 도입되어 점차 국

가적으로 영역을 확장한 후 현재는 탄소배출량을 감시하고 대기오염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Clean SYS 운영체계



* Clean과 System의 합성어(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 Air Korea의 경우 ▲실시간 국가 대기 질 및 통합 대기환경 지표 제공, ▲대기 질 예측 및 경고, ▲대기 질 데이터 제공 등의 기능 뿐만 아니라 OpenAPI를 통해 미세먼지 등 다양한 생활 대기 오염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 한국환경공단은 이와 같은 우수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콜롬비아나 몽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고 국가적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KGGTF나 한국의 녹색 ODA, KSP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계은행 협력국과 더 많은 관련 협력 추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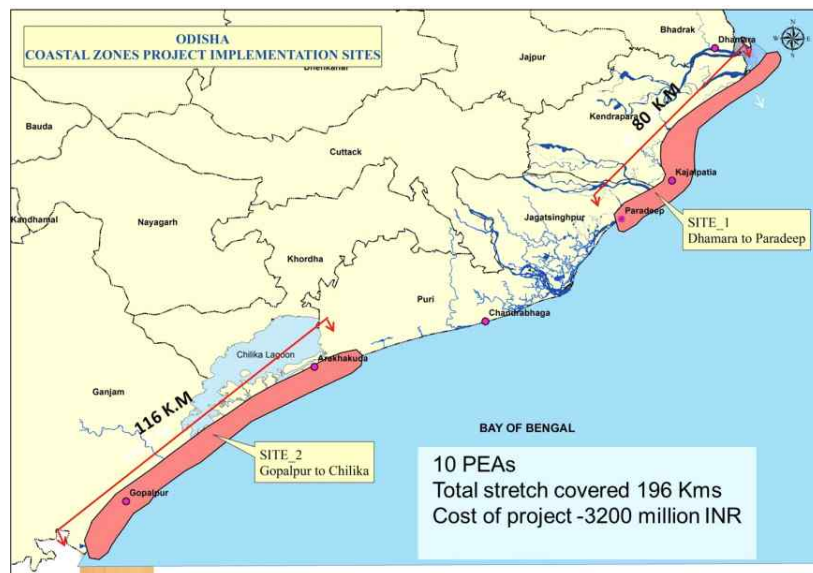
○ (이집트의 국가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이집트의 스마트그린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의 실행을 위한 주요 공공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성 중심의 이니셔티브로 다음의 6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 ①스마트, ②그린, ③평등 및 권위강화(empowerment, ④복제가능성, ⑤영향.

- 본 이니셔티브의 개시 이후 1회 차에만 이집트 전역에서 총 6천 개 가량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그 중 우수성을 인정받은 18개 사업은 COP27 등 다양한 행사 및 컨퍼런스에서 각 사업의 주요 아이디어와 실행방안을 소개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각각 여러 국제기구와 성공적으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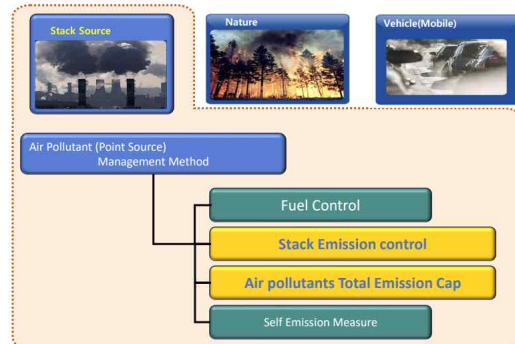
* 4단계의 평가(executive committee, technical committee, national judging committee)를 거쳐 최종적으로 162개의 사업이 선별

- (해안자원 관리를 위한 ICZM 프레임워크) ICZM 프로젝트는 범분야 접근을 통해 오디샤의 해안지역을 통합·관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해안자원의 현명한 사용, ▲주요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보존,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자연 기반 솔루션 도입 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최적화된 사회경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해안 경제 섹터 간 조율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본 프로젝트는 각 섹터별 독립적이고 전통적인 해안자원 관리 접근이 아닌 종합적이고 통합된 접근을 통해 거버넌스와 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이클론 대피처 제공, ▲희귀종 보호, ▲해안 개발 계획 조정 등을 통해 250만 오디샤 해안 지역주민에게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오디샤 사업 실행 지역



□ 사진자료



세계은행 사업 담당자 면담

1. KDI-세계은행 EAP팀 면담

□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16:00-18:00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 참석자

- (KDI) 김대용, 노다현, 선종인, 홍은선
- (세계은행) 황인철(세계은행 에너지 선임전문관)

□ 주요 논의내용

○ (세계은행 EAP팀 사업 소개)

- KGGTF 재원 지원을 통해 필리핀, 몽골, 태평양 도서국, 우크라이나 등의 유라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East Asia and Pacific, EAP)를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송배전 확충 및 개선, ▲스마트 그리드, ▲BESS 등 에너지 저장시설 확충 사업 등 다양한 범위의 에너지 사업을 수행 중.
- 해당 사업들은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고 활용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한국의 전문성 공유, 역량강화 워크숍, 에너지 인프라 지원, 에너지 분야 인력개발 및 효율화 등의 다양한 사업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KDI와의 협업 방안)

- KDI가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는 차관(lending) 단계에 앞서 진행되는 자문 및 분석(Advisory Services and Analytics, ASA)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프로젝트의 ASA는 일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영을 위한 기준, 가이드라인 제작, 기술 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부분에 특화된 전문 인력 필요
- KDI는 다양한 국가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외부 인력과 적절히 팀을 이루어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세계은행 황인철 선임전문관이 담당하는 EAP 이해관계자 사업은

현재 기획단계로, 이후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결정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협력가능성을 다시 논의하기로 약속

- GKEDC의 경우 2022년 하반기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에너지팀의 에너지전환 이해관계자 세미나* 개최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EAP 이해관계자 사업의 역량강화 활동이나 관련 학술세미나 등의 지식공유행사를 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22.12.13.~12.15.) 3일간 개최된 행사기간 중 1일차-3일차 세미나 현장운영 지원 및 시설 대관, 한국전력시스템의 현대화 관련 특별강연 기획 등의 역할 수행

2. KDI-세계은행 KGGTF 면담

☐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16:00-17:30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VIP 회의실

☐ 참석자

- (KDI) 김대용, 노다현, 선종인, 홍은선
- (세계은행) Richard Damania (Chief Economist, 세계은행 Sustainable Development Unit), 왕형근 팀장, 지광철 국장, 신지연 컨설턴트

☐ 주요 논의내용

- 세계은행 KGGTF-KDI Seminar and Joint Research Project 협의
- (프로젝트 수행 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녹색 기술 분야의 글로벌 모범 사례를 통해 지식과 정책 통찰력을 정리하고, 공유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녹색기술의 적용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과 정책적 지침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정보를 제공함.
 - 향후 세계은행과 KDI의 지속적인 녹색기술분야 협력기회를 모색
- (프로젝트 구성)
 - ❶ 세미나 진행
 - 주제: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 세부주제: 탄소중립,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별도 협의 가능)
 - 일시·장소: 2024년 2월 27일이나 28일, 세계은행 본사(워싱턴 D.C)
 - 예상 참석 범위: KDI, 세계은행, IMF, 각국 대사관, Korea Staff

Association 등 약 50명, 비공개 세미나(별도 협의 가능)

- 언어: 영어
- 성과물: 세미나 자료 및 발제 PPT
- 세션별 한국전문가 1명, 세계은행 전문가 1명의 연사가 발제 진행.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자 연구, 우수사례,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개도국의 녹색성장 이행 지원을 위한 향후 프로젝트 개발의 시사점 공유

② 공동연구 진행

- 기간: 2024년 3월~2024년 8월 (6개월) (별도 협의 가능)
- 성과물: 연구 보고서
- 세미나 이후 발표자들은 주제와 관련하여 세계은행 전문가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 연구 논문은 세미나 진행 과정을 통합하여 구성되며,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되는 형태

○ (논의사항)

- 예산: (KDI) 한국측 전문가의 여비를 모두 부담하며, 연구보고서 집필과 관련한 연구예산도 집행, (세계은행) 본사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개최 비용(ex: 대관, 다과, 오찬 등) 부담 및 외부 전문가의 경우 일부 연구예산 집행 가능
- 세부주제: (KDI, 세계은행) 보다 실질적인 주제이면서 큰 주제 (ex: Green Growth) 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은행 연구들도 고려
- 주요 컨택포인트: (KDI) 노다현 연구원, (세계은행) 신지연 컨설턴트
- 참석자: (KDI) 조동철 원장님 참석 가능

○ (참고사항) 현재 진행중인 세계은행 연구과제 리스트 (일부)

- (세계은행 Sustainable Development Unit) Land & Decarbonization, Ground Water, Economies of Water, Wealth of national people, Value of natural capital, Waste Management, Macro economic, Inclusion affordable planet, etc.
- (세계은행 KGGTF) Water, Urban, Transport, Energy, Digital Development, Volunteer Carbon Market, Climate change, etc.

3. KDI-세계은행 가나 교통팀 면담

□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17:00-19:00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이집트 VIP 회의실

□ 참석자

- (KDI) 김대용, 노다현, 선종인, 홍은선
- (세계은행) Hongye Fan (세계은행 교통전문관)

□ 주요 논의내용

- (KDI, CID 및 GKEDC 소개) KDI 부서별 업무 및 진행 사업 소개
- (세계은행 KUMAP 사업 소개)
 - (사업개요) KUMAP (Kumasi Urban Mobility and Accessibility Project)는 가나 쿠마시 지역 일부 도로 구간에서 이용자의 이동성, 안전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계획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 (세부내용) 쿠마시는 아직도 반 이상의 시민들이 도보로 이동을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은 약 43%가 사용하며, 5%만이 개인 차량을 이용한 이동을 하고 있으며, 쿠마시 인구의 3분의 2는 한 시간 이내의 도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없어 경제성장 마저 제약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세계은행은 KUMAP 사업을 통해 이러한 쿠마시 지역의 교통 관련 상황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1) 이동성: BRT(Bus Rapid Transit)의 도입을 통해 교통수단의 변화를 도모하고, 포용적이고 개선된 접근성을 보장함. 또한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과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 2) 안전성: BRT 동선의 도입을 통해 도로 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고 평등한 대중교통 디자인과 시스템 도입
 - 3)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함. 또한 정책과 역량 그리고 제도적 개혁이 동반될 수 있도록 계획
 - (예산확보) 전체 프로젝트 예상 비용은 약 4억 4천만 달러 (USD 440 million)이고 그 중 2억 달러는 세계은행의 자금 활용 예정임.

따라서 민간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 (KGGTF와의 협업) KGGTF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의 Green Growth 요소를 강화해 나갈 예정

- 1) 대중교통산업의 녹색전환 전략 수립
- 2) 대중교통시스템(ITS, Smart Mobility) 복합화를 통한 오염 최소화
- 3) 도시 전체의 녹색성장계획과 연계한 도시녹화 사업 참여
- 4) 담당 기관의 역량강화 및 지식 확산 도모

○ (KDI와의 협업 방안)

❶ GKEDC

- KUMAP 사업 내 2차례의 역량강화 연수의 공동개최 가능성 타진
- 한국의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콘텐츠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지난 9월 세계은행 및 LH와 공동으로 진행한 Knowledge exchange program on Smart City 내 기관 방문 내용* 공유

* (주)티머니를 방문했으며, 버스요금 체계(Level 1~4)에 대한 개념을 소개 받고, 시스템 시연장소 시찰

-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로 추후 교통시스템 도입의 윤곽이 잡히면 역량강화 실시 국가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함.

❷ CID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CID 내에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실제 ODA 예산이 투입되는 여타 사업을 소개함.
- 사업 중 전문가의 정책 수립 자문이 필요한 경우, 차후 CID에 연락 예정

4. GKEDC-세계은행 이집트 농업팀 면담

☐ 일 시: 2023년 10월 20일(금), 10:00-11:30

☐ 장 소: 나일 리츠 칼튼 카이로

☐ 참석자

- (KDI) 선종인, 홍은선
- (세계은행) Fatma El Zahraa Aglan (세계은행 농업 전문관)

☐ 주요 논의내용

- (KDI GKEDC 소개) 한국경제발전경험을 기반으로 디지털 및 기후변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GKEDC 기관 배경 및 진행사업 소개
 - 특히, 세계은행은 GKEDC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함께 추진 중인 블렌디드 러닝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GKEDC와 EBRD가 첫 번째 교육주제로 준비 중인 “스마트팜” 관련 콘텐츠를 차후 이집트의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하나 아직 GKEDC의 블렌디드 러닝 사업이 기획 단계에 있어 차후 지속적인 소통 필요
- (세계은행 이집트 사무소 농업팀 사업 소개)
 - (CRAFT 프로젝트) CRAFT 프로젝트는 기후 탄력적 농업의 발전 및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나 소규모 농가를 위해 관개시설을 지원하거나 농촌 중소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② 국가 전체적으로는 농업 정보시스템 혹은 플랫폼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문서비스, 조기경보시스템, 데이터 기반 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기후투자펀드) 기후스마트농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후재원 메카니즘인 기후투자펀드(Climate Investment Funds)는 EBRD,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으로부터 재원 충원
- (차후 협력방향)
 - (디지털 농업) KGGTF 재원의 지원을 받는 세계은행 이집트 사무소의 디지털 농업 사업에서 한국경험 및 사례 기반의 지식공유활동을 계획할 경우 GKEDC와 협력하여 진행 가능
 - CRAFT 프로젝트의 경우 정책 관련 측면에서 KDI가 강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나 농업이 KDI의 주요 정책연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정보를 GKEDC 측에 공유할 경우 차후 협력가능성 모색을 위한 검토 가능
 - 더불어, CRAFT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세계은행에서 기획·진행 중인 이집트 사업들에 대한 한국의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KSP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제안서 제출을 위한 KSP 사이트 전달
 - GKEDC의 경우 GKEDC의 예산을 단독 투입하는 사업 관련 협력은

어려우며, 대신 ①세계은행 측 재원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 GKEDC 시설이나 인력 등 In-kind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 및 ②한국 재원과 세계은행 재원의 공동융자(co-financing) 사업으로 예산 분담 시 협력사업 추진 가능

□ 사진자료



유관기관 견학

1. 현장견학: 나일로미터

□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14:00-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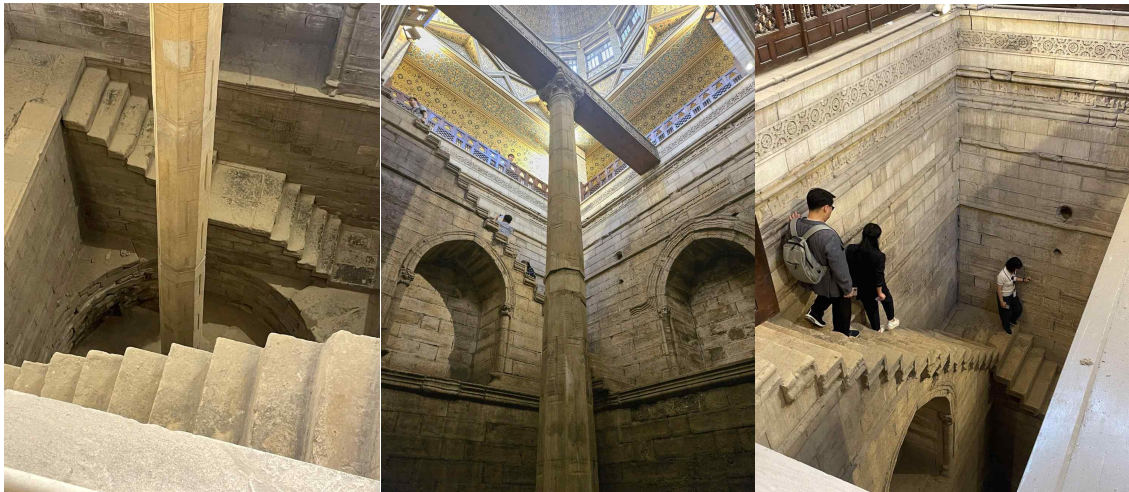
□ 장 소: 알로다 나일로미터(Ai-Roda Nilometer), 로다섬 이집트

□ 주요내용

-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집트에 수자원을 보급하는 주요 지역임.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 비옥한 토지에서 농경을 이루며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음.

- 따라서 나일로의 수위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이집트의 농경이 안정적인 수확물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건축물이 여러곳에 세워졌으며, 이번 현장견학은 로다섬에 위치한 나일로미터임.
- 서기 861년 압바스조 칼리프 알-무타와킬에 의해 지어진 로다섬의 나일로미터는 강바닥을 파고 돌기둥을 세워 눈금을 보고 수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견학용으로 보존됨.
- 8m(당시 측정법으로는 16큐빗)가 가장 적절한 나일강의 수위였으며, 이보다 수위가 낮은 경우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고, 너무 높으면 범람으로 인해 농사가 어려워 물과 관련된 전염병이 퍼졌음.
- 이집트에서는 이 나일로미터의 수위 측정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도 했는데, 당시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음.

□ 사진자료



2. 현장견학: 이집트 국립문명박물관

□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14:00-16:00

□ 장 소: 이집트 국립문명박물관

□ 주요내용

- (개요) 이집트의 고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각품 및 기록물 등 약 5만 개의 유물을 소장·전시하고 있는 이집트 국립문명박물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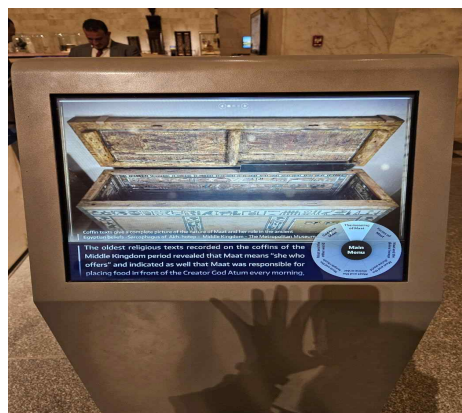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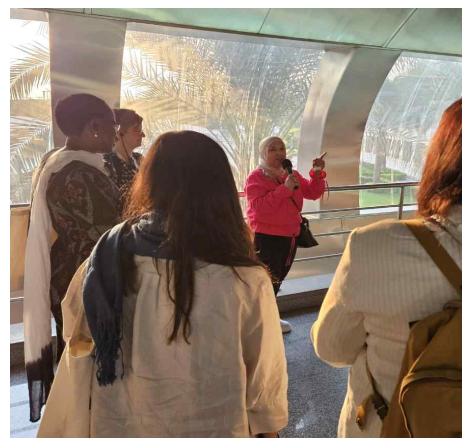
아랍권 최초의 문명박물관으로 고대~현대로 이어지는 이집트 문명 전반의 유산에 대한 범분야적인 이해의 공간으로 2021년 개관

- (배경) 특히, 이집트 국립문명박물관의 주요 목표는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수세기에 걸친 이집트 문화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하고 주변 이집트 사회와의 연결을 위한 지식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KGID 행사의 개최 의미와도 높은 연관성이 있는 장소임을 고려하여 현장전학 추진

○ (구성) 전시관은 크게 고대-중세-현대 등 시대별 전시관과 문명·나일강 사회·기록·종교 등 주제별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대 왕족들의 미라 22구를 모아 전시해둔 특별관이 조성되어 있음.

- 특히, 이집트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최신식인 미라 특별관의 경우 여타 박물관에 있던 미라들을 이집트 국립문명박물관으로 이전하여 람세스 2세, 세티 1세 등 이집트 역사 속 유명한 왕과 왕비들의 미라를 각각의 관과 함께 전시하고 있음.

□ 사진자료



6

향후 추진계획 및 평가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 후속회의를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 후속조치 관련 기관 관계자 정보

기관명	관계자 성함	연락처/비고
세계은행 EAP팀	Incheon Hwang (에너지 선임전문관)	ihwang@worldbank.org
세계은행 가나 교통팀	Hongye Fan (교통 전문관)	hfan1@worldbank.org
세계은행 이집트 농업팀	Fatma El Zahraa Aglan (농업 전문관)	faglan@worldbank.org
세계은행 KGGTF팀	신지연 (컨설턴트)	jshin8@worldbank.org

□ 평가

- 녹색성장 관련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현안 및 사업성과, 지식협력 수요 등을 확인하고 GKEDC의 국제협력 사업 참고자료 확보
 - 더불어, GKEDC의 지식협력사업 특징 및 사례 발표를 통해 행사참석자들에게 기관을 홍보하고 잠재적 협력사업 모색
- 세계은행 KGGTF팀 및 개별 사업팀과의 신규 사업 발굴 관련 논의를 통해 GKEDC의 사업 확장·고도화 가능성 확인